



경상지역
소나무

구불구불 가지가 춤추는 모양의 소나무

	
지정번호	문경-11-26-7-1 경북 문경시 동로면
지정년도	1982 적성리 965
관리기관	문경 36° 46' 34.29" N
수령	310년 128° 17' 21.11" E
수고	10m
흉고둘레	2,7m

말 무덤(마총)과 노비 무덤(노총)을 지키는 보호수 (문경-11-26-7-1) 소나무는 황장산 자락의 도로변에서 살아가고 있다. 소나무 가지가 구불구불 춤추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무송舞松이라 이름이 지어졌으며, 무송이 있는 곳을 무송대舞松臺라 하였다. 무송 소나무(반송)는 나무나이가 310년이라 하며, 연주패옥 전설의 임진왜란을 떠올려 보면 나무나이가 400년으로 추정될 만 하다. 일부 자료에는 나무나이를 600여 년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나무높이는 10m, 가슴높이둘레는 270cm, 밑동둘레는 28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4m 가량이다. 소나무는 커다란 바위위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추정되며, 굵은 가지에서 뻗어 나온 붉은 나뭇가지가 웅수철처럼 몇 번이나 굽어진 모습이다. 말 무덤(마총)과 노비 무덤(노총)과 춤추는 소나무(무송)가 전승하는 이야기의 중심이다. 무송대의 거대한 바위 위에 말 무덤과 노비 무덤이 춤추는 소나무와 함께 삼각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말 무덤 앞에는 마총이라는 작은 비석과 노비 무덤 앞에는 노총이라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소나무 앞에는 무송대라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또한 이곳 무송대는 풍수지리설

연주패옥聯珠佩玉 (벼슬할 사람이 많이 태어난다는 명당)형세와 관련한 전설이 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벽제관 전투의 패전으로 참수를 당하게 될 두사충(명나라 풍수지리학자이며 조선 사람으로 살았음)이 정탁 대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두사충은 그 은혜의 보답으로 대감의 신후지제(살아있을 때미리 잡아둔 뒷자리)를 잡아주기로 하였다. 두사충은 문경시 동로면 소나무(반송)가 있는 근처에서 연주패옥혈을 발견하고, 그 정확한 지점을 대감의 하인에게만 알려주었다. 그곳은 소나무가 있는 곳에서 100보 안쪽이라 하였다. 그 후 대감은 아들과 함께 두사충이 정해준 묘 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성리로 갔다. 잠시 소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하인에게 아직도 멀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인은 손으로 갈전동 쪽을 가리키며 여기서부터 100보 이내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말의 뒷발질에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화가 난 대감은 말을 죽여 소나무 밑에 묻고 나서 나의 터를 찾을 길이 없구나라며 탄식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유명한 연주패옥 명당 위치는 아직도 오리무중에 싸여있다.